

학생인권조례의 열쇠말과 대안적 접근

인권교육센터 '들'
배경내





사립교사들이 학교 앞 요강시위에 나선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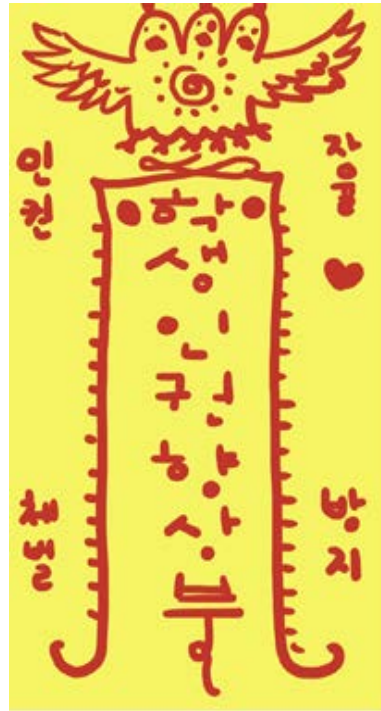


4 체벌 예방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안)- 중등

단계	조치	조치 내용	담당자
1	경고/상담	- 교사의 훈계 / 학생 상담	담당교사
2	교실 안 지도	- 교실 뒤에 서서 수업 참여 - 생각 의자에 앉아 있기	담당교사
3	교실 밖 격리 (Time-Out)	- 성찰 교실 프로그램 참여 · 방과 중 자기주도학습 실시 · 방과 후 잔류 지도	교감 전문상담인력
4	대체 프로그램 이행	- 대체 프로그램 미이행 시 재지도 - 지도 불응 시 징계 경고 - 학교관리자 학생·학부모 상담	생활지도부 학교관리자
5	징계	- 선도위원회 개최 및 징계 (사회봉사 이상 징계 시 지역교육청에 위탁 교육 가능)	학교관리자
6	징계 (교육지원청)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 사회봉사 및 특별 교육이수 프로그램 운영 관리 - 학생인권복지팀(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청 소년지도사 배치)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 램 운영 - 징계 프로그램 이수 이후 최종적인 교육 조	교육지원청

➤ 교사가 체벌을 안 해도 되는 환경, 학생인권과 교육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기획

▶ 우리 교육의 프레임은?



한장만 효험이 있어요.
들중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장만
선택해 프린트해서 사용하세요.

어디,
사람들이 어느걸 더
원하는지 한번 봅시다?

정말 양자택일의 문제일까?



한국: 학생 흥미도 17위



핀란.

한국: 학생 자아개념 19위

오후 2-3시 수업이 끝난 이후

☞ 국제학력조사 PISA 전 영역에서 고득점을 올린 핀란드. <경쟁이 아닌 협력! 자발성에 기초한 교육! 낙오자 없는 교육! > 지향

☞ “한국의 학생들은 성적은 높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 가장 부끄러운? 아니 참담한 통계



- 2008년 학생 137명 자살
- 2004년~2008년 학생 623명 자살, 5년 새 35.6% 증가
- 성적비관 자살은 4.25배 증가
 - 교육과학기술부(09년)
- 청소년 20명 중에 1명꼴로 자살 시도
 - 질병관리본부 발표(07년)
- 청소년 사망원인 2위가 자살
 - 통계청(09년)
- 중고생 5명 중 1명 우울, 자살 위험군
 - 중고생 5653명 설문조사결과(10년)

☞ 삶의 기쁨은 어디에?

➤ 무책임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



■ 늘어나는 학생간 폭력

☞ 분출구를 찾지 못한 스트레스와 분노

■ 학생회장 선배가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08년 강릉)

☞ 유일하게 알고 있는 문제해결 방법이 폭력

학생인권조례의 철학

: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쇠말



1. 권리의 존엄한 주체로서의 학생

: 모욕과 폭력이 없는 학교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호하는 데 있다.



“협약은 아동의 지위를 독립된 인격체이자 인권의 주체로 단언한다. 아동은 부모나 국가의 소유가 아니며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지도 않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8, 47항

2. 참여와 결정을 훈련할 수 있는 학교

: 배제와 강요가 없는 학교 - 학생의 참여는 권리이다.

: 형식적 참여, 명목적 참여, 장식적 참여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가 아니다.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비교적 큰 도전이 아니며, 그들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는 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12항

3. 차이를 존중하고 차별에 맞서는 학교

: 차별과 획일이 없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다양성을 사랑해야 한다.

: 모든 학생은 차이를 존중받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양성은 교육의 초석이다. (...) 성장이란 민주화와 반차별이 존엄한 삶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경험해야 하는 집단적 학습 과정이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70-71항

4. 감당할 만한 교육

: 배움이 즐거운 학교 - 학생은 학습할 능력을 타고났지만 잘못된 교육에 의해 학습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교육은 '교육'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다.



“모든 아동은 비폭력의 상황에서 학습해야 하고, 학교는 안전하고 아동 친화적이어야 하며, 교과과정은 권리를 기반하여 이뤄져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5. 자유의 행사를 통한 책임 있는 삶의 영위

: 자유를 통해 책임을 배우는 학교 - 학생은 인격과 자유를 존중 받을 때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교실과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것을 격려하고 허용해야 하며, 스스로 생각할 자유와 타인의 견해를 존중할 자유를 이해하는 장이다.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이러한 자유의 행사를 포함한다.”

-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보고서
E/CN.4/2005/50, 115-7항

6. 학생의 삶에 대한 총체적 돌봄이 있는 학교

: 학습뿐 아니라 삶을 돌보는 학교 - 학교는 학생의 삶에서 중요한 인격적, 사회적 환경이다.

: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기 이전 상황과 학교를 떠난 이후 '가정, 지역사회, 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유념하는 것이다.



“학교는 의료서비스, 상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한 자원이자 위탁센터로서 복무해야 한다. 특히 학대, 방임, 피해 및 착취로 고통받고 특별한 필요를 가진 청소년에게 그렇다.”

- 청소년 비행 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26항

7. 인권의 상호불가분성에 대한 존중

: 자유와 보살핌이 함께 보장되는 학교 - 학생의 모든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 물적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자유의 행사도 가능해진다. 또한,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의 의견과 자유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건강권의 실현은 비밀유지와 사생활을 존중하고 적절한 성 및 생식 관련 건강서비스를 포함하는, 청소년 친화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에 달려있다.”

-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4, 23항

8. 네트워크와 연대가 꽃피는 학교

: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 학생 권리의 이행에는 학생 자신을 포함한 사회의 전 부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폐쇄공간이 아니라, '마을'에 열려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인권 보장, 보호 및 감독을 위한 비정부기구와의 제휴와 연대의 발전을 환영하며 정부가 그들에게 비지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비정부기구와의 긍정적인 공식적·비공식적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 59항

9. 교사의 권한과 역량 강화

: 학생인권 문제를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학생인권 보장은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요구한다.

: 교사는 능동적 참여를 보장받고 학생인권을 지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교사는 인권에 기반한 학교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자이다. (...)어떤 교육 개혁도 교사의 능동적인 참여와 주인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모든 단계의 교육 체계에서 교사는 존중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 채택,
다카르(Dakar) 행동계획 69-70항

10. 권리 구제에 대한 보장

: 학생 인권이 의미 있으려면 권리 침해가 있을 때 이를 시정할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권리 회복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접근 가능한 그리고 친아동적인 신고 체계와 서비스의 수립 : (아동 폭력 신고와 관련) 각 국가는 안전하고 널리 홍보되어 있고 비밀이 보장되고 아동 및 아동의 대리인이 접근하기 쉬운 절차들을 세워야 한다. 모든 아동은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01-104항

학생인권, 교사 대 학생의 싸움인가



학생인권 정책, 교사 대 학생의 싸움인가?

교사 1478명, 학생 1885명, 학부모 959명 의식 조사(10.10.18)

1) 학생인권조례 필요한가?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없다	모르겠다
학생	53.0%	35.6%	3.2%	2.0%	6.3%
학부모	26.6%	61.0%	6.8%	0.9%	4.8%
교사	45.8%	42.9%	8.3%	1.5%	1.4%

2) 체벌에 대한 생각(교사)

없어져야 한다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나 교육여건 가운데서는 불가피	있어야 한다
60.3%	32.8%	7.0%

3)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인가?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4.0%	9.4%	25.7%	61.0%
교사	1.4%	5.1%	24.6%	68.9%

4)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고?

	매우 동감한다	대체로 동감한다	별로 동감하지 않는다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
학생	6.4%	17.8%	33.2%	42.6%
교사	3.7%	13.7%	35.1%	47.5%

'추락하는 교권'...고교생이 여교사 폭행

지난 16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1학년 영어 보충수업 시간. 25살 여교사 A 씨는 교재를 가져오지 않은 학생 5명을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벌로 돌아가며 서로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라고 시켰는데, 한 학생이 이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욕설까지 오갔고, 급기야 분을 못 참은 학생이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녹취:해당 고등학교 학생]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돈 있으면 한번 때려보라고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선생님의) 가슴 위를 주먹으로 때렸어요"

여교사는 학교와 1년 계약한 기간제 교사로, 폭행 사건 뒤, 심리적인 충격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등교정지 처분을 하고, 추가로 정학이나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녹취:학교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도 미래가 있고, 선생님도 젊으시고, 추후에 서로 상처 없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난달 춘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는 등 최근 들어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랐고, 중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동영상도 유포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권 추락'의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 ‘ 교권 ’ 이 무너지고 있는가?



▶ 고등학생들에게 희롱당하는 여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처사진

- 선생님 꼬시기? 여교사 수난시대? 교권 문제로만 접근할 때 여교사는 피해자이자 무능교사로 전락
- 누가 표적으로 선택되었나? 상대적 약자인 신규, 비정규, 젊은 여교사가 주로 표적으로 선택되는 이유

☞ 폭력의 문화를 인권의 문화로 재구성해야 한다



☞ 학생들이 교사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교사가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로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

☞ 순천 여중생 여교사 머리채 사건 : 피해자는 과연 누구인가?

➤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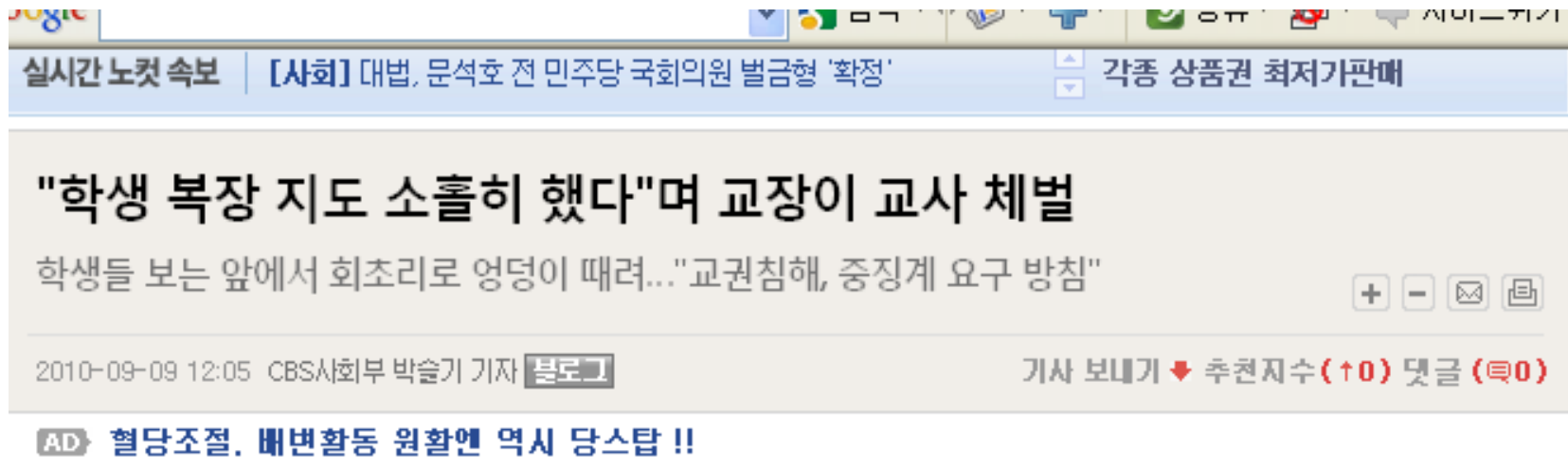


학생회장 선배가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08년 강릉)

신임 교장의 부임 -> 강화된 규정 & 엄격 단속 강조 ->
교사의 통제업무 강화 -> 학생회가 중간 통제자로 활용 ->
> 후배 단속 과정에서 폭력 행사 -> 학생 사망

➤ 감시자, 통제자로 호명되는 교사들

➤ 교사가 체벌을 안 해도 되는 환경, 학생인권과 교육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기획



실시간 노컷 속보 | [사회] 대법, 문석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 벌금형 '확정' | 각종 상품권 최저가 판매

"학생 복장 지도 소홀히 했다"며 교장이 교사 체벌

학생들 보는 앞에서 회초리로 엉덩이 때려..."교권침해, 중징계 요구 방침"

2010-09-09 12:05 CBS사회부 박슬기 기자 **블로그** 기사 보내기 추천지수(+0) 댓글(0)

AD 혈당조절, 배변활동 원활엔 역시 당스탑 !!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장이 '복장 지도를 소홀히 했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들을 체벌해 갈쌍을 빚고 있다.

테마가 있는 뉴스

- Why뉴스
- 최승진 포인트 뉴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평택에 위치한 A고등학교 김 모(82) 교장은 지난달 24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2~3학년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장은 용의복장이 불량한 학생이 있는 학급의 담임 교사를 불러 칠판에

➤ 폭력은 어떤 메시지를 남기나?



학교 안 힘의 피라미드



➤ 강요된 학습, 강요된 노동



0교시, 강제야자는 교사의 연장노동 없이는 불가능



일년 1040시간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법(하루 9시-5시까지 130일간)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

참고: 독일은 1시반 하교



한국은 3150시간? (8시-밤10시까지 225일간)



교사임에도 학생인권을 말한다? 교사니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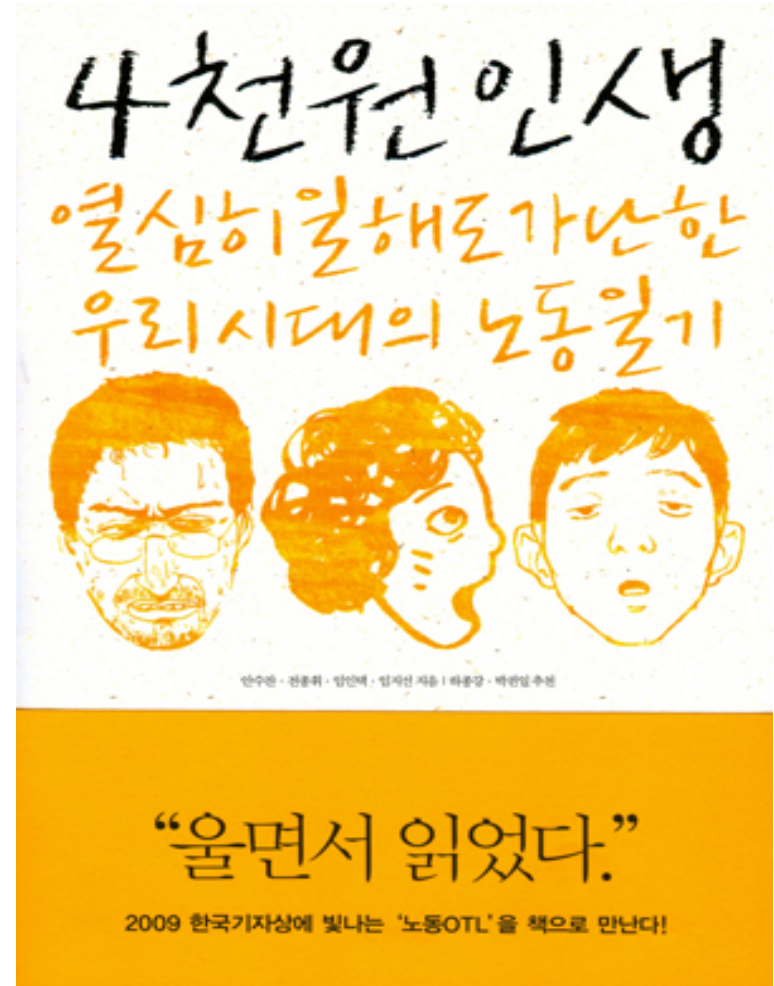


“실내화 규정을 없애고 나니 아이들 눈을 보게 되더군요.”
“아이들 단속하는 데 쓰던 에너지를 수업 준비와 아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인권을 경험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교육 아닐까요?”

학생인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사람을, 사람이 놓인 구조를 보자
: 교실 붕괴의 진짜 원인은?



☞ 반복 지각, 수업 포기의 속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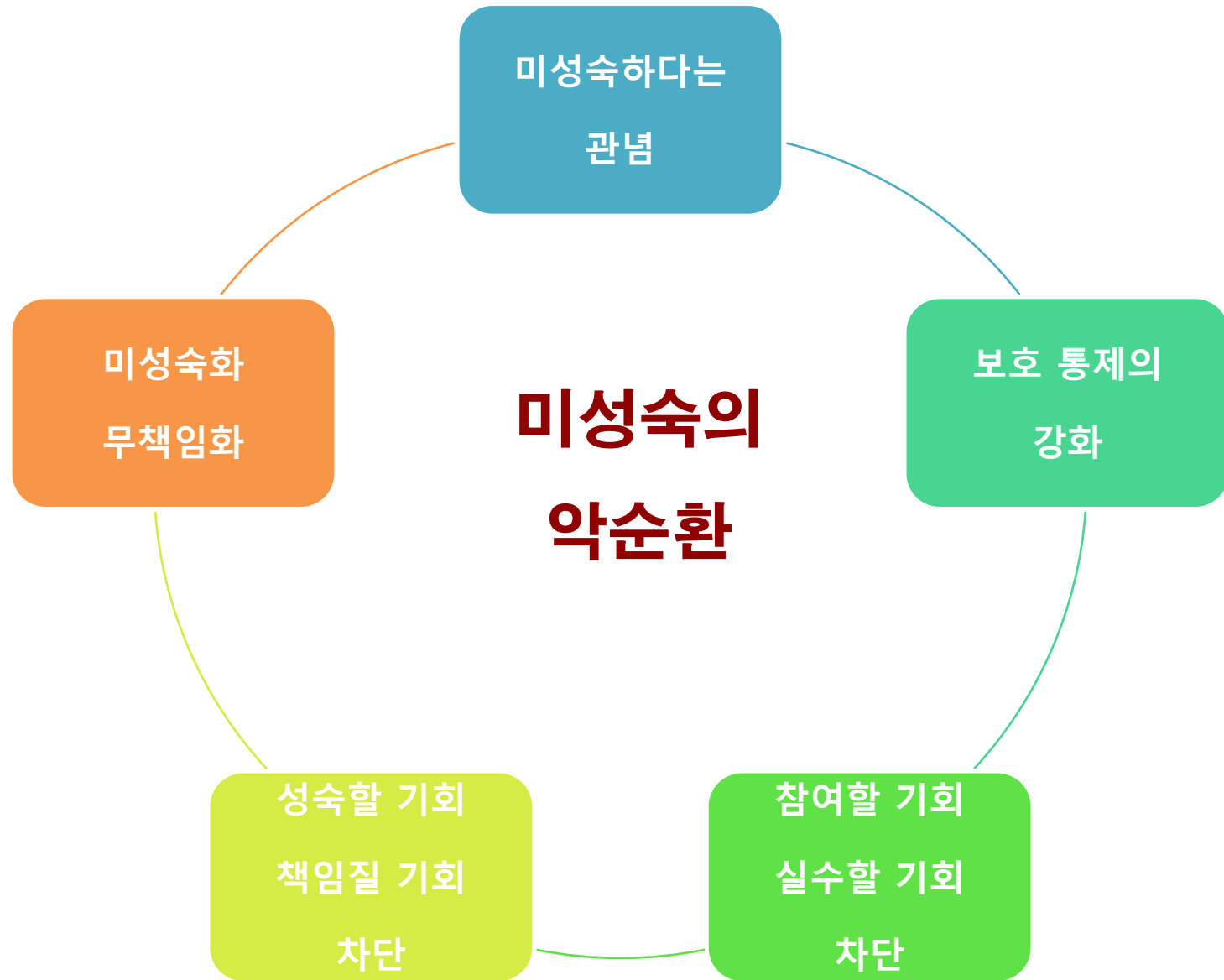
▶ '문제행동'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자



- 교장실 쪽지 투척 사건, 이 교장선생님의 선택은?

☞ 민주적이고 편안한 의사소통구조를 만들자

➤ 미성숙에 대한 질문을 바꾸자





학생이 미성숙하다 가정될 때 교사의 권리도 제한된다

학생인권을 학교 인권 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자!

➤ 학교 규정에 대한 사고를 바꾸어보자

뉴욕교육청 학교규정 가이드라인

학생의 권리

- **무료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 괴롭힘, 편견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를 받을 권리/ 개인 기록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 **표현 및 개인의 자유** : 학생회 또는 각종 모임을 구성, 참여할 권리/ 학교생활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위원회를 대표할 권리(필요시 투표권도 행사)/ 정치적인 것을 포함하여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배지, 완장 등을 착용할 권리/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위험하거나 학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를 제외)/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몸수색 등 부당한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맹세를 위한 기립을 거부할 권리 등
-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 무엇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리는지 알 권리/ 이의를 제기할 권리/ 성인 또는 대리인과 동반 출석할 권리

학생의 책임

- 수업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 학교기기를 조심히 다룬다
- 건물 출입 규정을 따른다
-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인종,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분쟁을 해결할 때 극단적 방법을 피한다
- 서로에게 예의 바르고 진솔하게 행동한다
-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학생회를 긍정적 토론의 장으로 만든다
-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온다
- 학교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 권리를 가진 자만이 책임도 질 수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분젠 김나지움 학교규범

2003년부터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학교규정을 만들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났다. 중점적인 논의 끝에 학교 규정이 만들어졌다.

전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생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면 공동 생활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존중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원칙

-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 갈등이 생기면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비판이란 언제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개별 세부 원칙

- 학생이 지켜야 할 원칙 – 폭력 사용하지 않기. 객관적으로 해결점 찾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학급 공동체를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통합하기 등
- 학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 자녀의 인격적,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학교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등
-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 – 전문성 있는 수업하기.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 주기.
-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 구성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

 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약속이다

‘ 혼란’ 없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까?



“왜 직접행동이냐고요? 왜 연좌 데모를 하는 거냐고요? ...비폭력 직접행동은 ...협상을 거부하는 사회를 곤경에 빠뜨리고 더 이상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부각시켜 더 이상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직접행동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 마틴 루터 킹





✓ "학창시절은 인생의 대기실이 아니다."
(After and there => Now and here)

✓ "가장 비싼 부작용도 가장 값싼 폭력보다는 낫다."